

현대불교

2개월간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거래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1711-0800-0000
국민은행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명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판)

회장·노태우 / 발행인 김 원집 / 편집장·노성호 / 고문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0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22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학·현대화·세계화 제 147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리면, 한해도 거르는 일이 없이 학생들의 잘못을 훈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학생들의 잘못을 훈계하는 날은 나에게 지극히 화한으로 남아 있는 10여년전의 부끄러운 일이 어김없이 상기되곤 하여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때 우리 부부는 당시 4세와 5세인 두 아이들을 집안에 남겨두고 1시간 정도 외출 한적이 있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불과 며칠전 도깨비로 말끔히 단장한 벽면에는 어지러이 화장품의 요란한 색들로 엉망이 되어있었고, 방바닥의 이불은 크림로 선 화운데이션 등을 혼합하여 창작한 진귀예술품이 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는 분기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갖 화장품을 사용

‘합의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행사인

하여 영위예를 담당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완성했다는 자부심에서 우리나라는 영복한 웃음을 지으며 담담하고 자랑스럽게 부모를 맞이하고 있었다.

방안에 펼쳐진 풍경을 접하는 순간, 아이들을 향하는 내시선에는 섬뜩한 파이란 색깔이 펼쳐져 나오고 있었다. 동시에 아이들을 향해 내뿜은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첫마디에 아이들의 “아빠! 잘못했



김재준

내 잣대 내세우지 말라

어쨌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며 공포에 사로잡혀 영문도 모른채 무조건 용서를 받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날의 사건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나는 왜 그날의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 속에 회한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나는 그동안 무수한 자문자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방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어른인 나의 눈에 는 형편없는 난장판의 모습이었지만, 해맑은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흥미진진하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한 즐거운 놀이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결코 어른의 잣대아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독특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행복한 웃음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조계종-정부 ‘합동징수’ 합의

입장료 사찰지원 법제화... ‘폐지’ 점진 검토

16일부터 시행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 분리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조계종과 정부가 14일 합의의 도출, 산문폐쇄의 고비는 넘겼으나 고개내 진동이 예상된다.

조계종은 15일 “종단과 내부 부 문제부 관계자가 14일 오후 회의의를 갖고 문화재관람료를

자연공원에 명문화한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국가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 등 3개항.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조계종은 15일 국립공원에 19개 합동징수사항과 해당본사에 정부와의 합의사항과 조정된 요금내역을 통보했다. 조정된 요금의 징수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지홍삼은 “이번 정부와의 합의는 분리징수등의 과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의결이 이뤄졌다. 공원입장료의 입장부분을 사찰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연공원에 의해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스님은 또 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 “정부측이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단이 폐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종단협 인권위 개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개소 및 헌법식이 13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매일 1회씩 인권법회를 열고 인권관찰을 개실, 인권운동을 벌인다. 이날 개소 및 헌법식은 위원장 해공 태고종 재부부장을 비롯해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 인국 태고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지도자의 태기와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산문폐쇄 아직 유효”

본사주지모임 강경입장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고구분사 주지모임(회장 설조)이 내부부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적 산문폐쇄와 공원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의 지속을 결의했다.

본사주지모임은 지난 13일 방타워호텔에서 16개 본사 주지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공원입장료 폐지촉구

추미애의원, 내무위국감서

국민회의 추미애의원 의원정부를 향해 법적근거가 잘못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열린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공원 관리공단에 환경전문 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관리공단의 환경부 이관, 공원지역의 훼손과 오물처리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부석사 조사당 서까래 붕괴

3층석탑도 낙서수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18호)이 각종 낙서와 흡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조사당(국보19호)은 서까래가 벗겨 내려앉았고, 3층석탑(보물249호)도 낙서로 수난을 겪고 있다.

무량수전 좌우벽면과 뒤편 벽면은 온통 흐릿한 물 등으로 글은 낙서로 가득하며 손이 닿지 않는 벽면 상단까지 낙서가 적혀 있다.

조사당은 지난해 서까래 2개가 벗겨 문화재관리국에 보고, 관계자 조사까지 마쳤으나 아

보경사 탕화2점 도난

전문털이범 소행인듯

포항 보경사(주지 김현) 대웅전 후불탱화와 지장전 삼장탱화가 11일 도난당해 경합이 수사에 나섰다.

사찰측에 따르면 아침에불을 위해 경내를 둘러보던 중 대웅전 후불탱화와 지장전 삼장탱화가 예리한 칼로 뜯겨져 없어진 것을 발견, 경합에 신고했다.

경합은 대웅전과 지장전 문고리를 뜯고 들어가 탕화만을 훔쳐간 것으로 보아 문화재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제3회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들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귀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 주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음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단풍빛 고운 산사(山寺)를 찾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민족의 영산 지리산(智異山)에 소재한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화엄사와 연곡사 당사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의 삶과 죽음(부도·석등의 의미)

- 10월 테마여행 - 화엄사 연곡사**
- 참가 안내
 - ◇출발: 10월 25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 ◇회비: 4만원(조식제공)
 - ◇인내: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계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연곡사여행사
 -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후원: 일양약품

설악에 나쁜 청동좌불 24년

신홍사 ‘통일대불’ 25일 점안식

민족통일의 염원을 대자비로 품어안은 청동 석가모니부처상이 11년만에 설악에 나부쳤다.

25일 점안식을 가진 신홍사 ‘통일대불’은 높이 18.9m로 좌불로는 국내 최대규모, 대불의 장엄함이 기운 단풍으로 단장된 설악산 신홍사 그 현장을 간다.

미리내 실버타운 유무상통(有無相通)마을 기공식 · 10월 22일(수) 오후 2시

“종교간에 경화가 없으면 세계의 경화는 불가능하다”(한스 킹)는 말처럼,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함께 어울려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세계 경화의 기초를 놓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중생구제를 위한 우리 노부노님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공양이요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대 무무 동참하시어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성심으로 초대하옵니다.

도착성당 주임신부 겸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 대표이사 방 상 복 대건안드레아신부 두손모음

- ◎ 주례: 최덕기(바오로) 주교님
- ◎ 장소: 미리내 성지(유무상통마을 신축부지)
- 자녀들과 사회, 조국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노부노님들의 행복한 안식처가 되도록 부디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 보아 주십시오. 우선 100여 부노님들만이라도 어서 신청 하셔서 기운나게 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일 잘 하겠 습니다.
- 건축내역(연건평 6,045평) 방재 1만방부지 투옥공사 완료
- ◎ 지하층(676평): 체력단련장, 전기실, 세탁실, 화장실, 영인실, 엘리베이터실(2)
 - ◎ 1층(1,159평): 식당, 주방, 식당, 화장실, 상담실, 민회실, 사무실, 치대실, 물리치료실, 기계유실, 병실, 진찰실, 의무실, 의료부속실
 - ◎ 2층(966평): 운동실, 강당, 지원봉사실, 쉼터(남·여), 커피실, 휴게실, 성경공부실, 취미실, 사예실, 도서실, 취미교실, 국악교실, 미술교실,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레지오호텔실, 기도실, 도예실, 편예실, 공작실, 미용실
 - ◎ 3층~9층(459평): 주거시설(3층 수녀관 5호) ◎ 부대시설(남급당) 30평



입주금 내역

구분	전용면적	분양일수	보증금	생활비	총입주금	
1인실	8.5평	200일	1억 원	5천 원	1,005천	
2인실	17평	180일	2억 원	1억 원	3억	
분리형	1인실	7.5평	공정25%	공정50%	공정75%	입주시
	2인실	3.2천원	3.2천원	3.2천원	3.2천원	3.2천원
합	1인실	5.2천원	5.2천원	7.2천원	7.2천원	6.2천원
	2인실	5.2천원	5.2천원	7.2천원	7.2천원	6.2천원

※ 위 보증금은 분양대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이 차등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동등 크면 됩니다. (이 보증금은 후지구 및 조영비, 설계비와 관련, 건축비로 충당되는 돈입니다. 후고, 그렇게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충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꼭 주십시오.

◎ 입주예정일: 2000년 5월경

◎ 건축허가번호: 안성 97-6-246

◎ 설계: (주)네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 계 철(안드레아)

◎ 시공: (주)진 덕 산업 대표이사 최 진 국(토마스)

◎ 주관: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도착성당 설립)

약도

문의 및 계약처

-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 (464-880)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유정리 579-1 ☎ (0347) 64-9751~4 / FAX. 64-9750
- 작은 안나의 집(노인 요양원) (464-880)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유정리 579-1 ☎ (0347) 64-9751~4 / FAX. 64-9750
- 미리내 유무상통마을 헌장 (464-900)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 신82 ☎ (0334) 72-0813 / FAX. 72-0814
- 도착성당 (464-880)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283 ☎ (0347) 62-5146, 61-5795 / FAX. 63-8298